"행복했습니다, 못 잊을 거예요"

U대회 참가 선수·임원들이 말하는 광주

지구촌 146개국 1만3000여명의 청년들이 뜨겁게 달궜던 광주 U대회가 14일 폐회식을 끝으로 12일간의 열전을 마감한다. 대한민국의 남쪽 광주에서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친 선수들과 독특한 문화를 체험했던 외국 관광객들은 "친절한 시민들이 살고 뛰어난 경관을 지닌 광주를 잊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는 U대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도시 브랜드가치를 크게 상승시켰다는 평가다. 12일간 광주와 전남을 둘러본 각국 선수와 관광객이 전하는 소감을 모았다. 〈특별취재단〉

친근한 시민들 인상적

세심하고 친절한 배려 돋보여

광주시민 자부심과 저력 실감

고국 돌아가 감동과 재미 전할 것

〈1〉 사라 제더펠트(22·스웨덴·태권도)
광주시민 모두 매우 친절하고, 다정했다. 광주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쌓고 간다.

〈2〉 도니아 칼디(22·스웨덴·태권도)
광주는 뛰어난 환경과 친절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도시로 기억될 것이다.

〈3〉 한나강(20·파라과이·학생)
광주의 사람들과 광주만의 문화를 알게되서 기쁘고 한국에서 대회를 열게 된것이 광주사람들에게 굉장한 기회였던것 같다.

〈4〉 비스마크 보아텡(23·캐나다·육상)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해준 광주시민들을 기억할 것이다.

〈5〉 루시아 슬라니코바(24·슬로바키아·육상)
날씨는 매우 더웠지만, 매우 친절하고 우호적인 시민들로 인해 대회가 완벽하게 치러진 것에 감사드린다.

〈6〉 톰 뮐러(20·독일·펜싱)
광주는 나에게 멋진 경험을 주었다. 광주의 기억을 절대 잊지 않겠다.

〈7〉 알리야 프로토(19·미국·리듬체조)
광주는 너무 아름답고, 설레는 곳이다. 나는 이곳을 사랑하게 됐다.

〈8〉 다라야 사라(27·아르헨티나·리듬체조)
이곳을 너무 좋아하게 됐다. 사람들 모두 친절하고 공손하다. 항상 웃고 도우려고 노력한다. 휴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다.

〈9〉 곤잘레스 보닐라 조엘(26·스페인·태권도)
한국에서 말하는 '예의'는 물론 모든 선수들에게 세심하고 친절한 배려가 돋보였던 대회라고 평가한다.

〈10〉 루슬란 자파로프(20·카자흐스탄·태권도)
말과 이름은 확연히 달라도 비슷한 외모를 가진 것처럼 마음이 푸근한 대회였다.

〈11〉 알렌산드라 김(50·고려인·우즈베키스탄 태권도 수석코치)
여러 국제대회에서 매번 물 한모금 얻어 마시기 힘들 정도였으나, 고국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열렬한 환호 속에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

〈12〉 피레딥(21·태국·태권도)
광주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하게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었다.

〈13〉 이현지(22·캐나다·태권도)
도심 곳곳에 정겨운 매력이 풍기는 곳으로 함께 온 캐나다 동료 선수들에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한다.

〈14〉 빈센트 라보에(26·캐나다·펜싱)
개회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깨달았다. 나에게는 이제 1만3000명의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을.

〈15〉 아이사 이사 셰니(21·니제르·육상)
광주U대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줬다. 세계의 다른 무대에서 U대회에서 만난 선수들을 다시 만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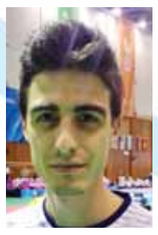
〈16〉 페이 홍 후앙(24·대만·배구)
2년 뒤 대만에서 더 발전한 모습으로 한국 선수와 광주시민을 만나길 바란다.

〈17〉 페이비 브주라(23·우크라이나·펜싱)
광주 곳곳의 5·18 유적지, 문화 행사장 등을 답사하면서 광주시민의 자부심과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18〉 필리포 코르티(26·이탈리아·축구)
12일이 짧게 느껴질 만큼 승패를 떠나 진정 즐기며 경기를 뛸 수 있었다.

〈19〉 드니스 스코타렌코(23·우크라이나·축구)
피부색과 문화가 저마다 달라도 금세 친구가 될 수 있는 광주시민들의 친화력에 놀랐다. 유쾌한 나날이었다.

〈20〉 크리스텔 사네(21·레바논·육상)
SNS 활동뿐만 아니라 고국에 돌아가서도 광주U대회에서 받은 감동과 재미를 그대로 전달할 것.



맞춤형 선수단 구성에 홈 이점도 충분히 활용

한국 종합우승 원동력

아름다운 도전, 최고의 성적이었다.

한국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를 위해 21개 전 종목에 역대최다 규모인 516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메달 유망종목에는 엔트리를 1.5배로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벌였다. 그 결과는 하계유니버시아드 사상 첫 종합우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계국제종합경기 대회 참가 사상 첫 1위의 결과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쾌조의 스타트와 맞춤형 선수단 구성=순조로운 출발이었다. 금메달 행진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유도였다. 유도 100㎏의 조구함이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면서 시작된 U대회에서 '순천의 딸' 김성연이 금빛 메치기를 하는 등 일본의 아성을 누르고 8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며 선수단에 사기를 불어넣었다.

유병진 한국 선수단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유도 선수들이 처음에 예상외의 성적을 내줬다. 선수들이 자신있게 대회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메달에 초점을 맞춰 선수단을 구성했다. 올림픽 무대까지 석권한 '신궁' 기보배를 필두로 이용대(배드민턴), 김온아·류은희(이상 핸드볼) 등 주요 종목에 국가대표 선수들을 파견해 선수단에 무게를 더했다. 미래까지 고려했다. 대학 저학년 중 우수 선수를 우선 고려하는 등 '신구조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다. 다음 대회까지 겨냥할 수 있는 '새내기'들의 메달도 이어졌다. 선택종목으로 양궁 컴파운드를 선택한 것도 성공적이었다. 한국은 3관왕 김종호를 앞세워 컴파운드에 걸린 5개의 금메달 중 4개를 쓸어담았다.

◇홈 이점을 활용한 선수들의 선전=여자 골프 2관왕 이정은은 "익숙한 코스에서의 편안한 플레이였다"고 말했다. 24년 만에 여자테니스 금메달을 만든 한 나래는 "비 때문에 결승 장소가 바뀌었는데 서킷 대회도 치러봤고 적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용대는 "음식 걱정 없이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홈 이점이 있었다. 편파 판정 등의 '봐주기'가 아닌 선수들 스스로 만든 홈 이점이었다. 익숙한 곳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든 선수들은 '대한민국'을 외쳐주는 든든한 홈팬들의 성원에 보답을 했다. 대회에 맞춰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노력한 것을 결실로 이뤄낸 것이다.

태극마크에 대한 선수들의 자부심도 있었다. 남자 테니스 2관왕 정현은 윔블던 일정이 끝나자마자 선수단에 합류해 살인일정을 소화했다. 한계에 도전한 그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남자 단식·단체전 금메달과 복식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부상으로 '금빛 연기'를 선보이지 못했지만 도마의 양학선도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고 싶어했다. 선수들의 혼신을 다한 준비와 노력이 일군 기적 같은 1위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한국 펜싱 여자 에페 제외 전 종목 메달

한국 펜싱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광주U대회에서 여자 에페를 제외한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 역대 U대회 사상 최다 메달을 수확했다.

한국 펜싱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해 메달 종합순위 2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카잔 대회(금 2, 은 3) 때보다 메달 수가 3개 많고, 2011년 선전대회(은 2, 동 5)보다도 많은 역대 최다 메달이다.

한국은 사브르 남자 개인전에서 광주 출신의 송종훈이, 여자 단체전에서 김선희·최신희·김하은·최수연이 우승을 합작해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여자 사브르 김선희는 개인전에 은메달을 추가했고, 남자 플러레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땄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U대회 끝낸 양궁팀 야구장서 소음 훈련

광주U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중 8개를 휩쓴 한국 양궁 국가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잠실야구장에서 소음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다.

실제 양궁 경기장처럼 시끄러운 야구장에서 관중의 응원과 함성을 받으며 화살을 쏘는 것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큰 대회에 대비하기 위한 양궁 대표팀 특유의 훈련이다. 14일에는 기계활인 컴파운드 대표팀이, 15일에는 올림픽 정식종목인 리커브 대표팀이 오후 5시55분부터 약 20분간 실전처럼 훈련한다.